

완도군 용암마을, 교통약자 위해 승강기 설치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

완도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서 '사람과 길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완도읍 용암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3%를 차지하는 있는데, 지형상 주도로 일방통행로와 10미터 이상 고저차로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18인승 승강기 1기를 설치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보행 취약자의 보행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푸소체험 농가 위생·안전점검 실시 완료

강진군이 다가올 9~10월 체험객 성수기철을 대비해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푸소체험 농가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 실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푸소체험 운영 농가 1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체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특히 민박사업자로 등록된 푸소체험 농가의 실제 거주 여부, 소화기·단독 경보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건물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 점검, 숙박 및 위생 청결 여부 등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아울러 군은 성수기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취약시설 사업장 및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서는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푸소체험 성수기를 사전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점을 기하고 있다. 푸소체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남도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출발

목포시는 체험 여행 프로젝트인 '남도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남도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전라남도가 2019년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11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목포시는 사업 평가결과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6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한 18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사업을 주관할 민간보조사업자로 목포 게스트하우스협회를 선정하였다.

총 24명 60여명이 신청하여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리는 성황을 이뤘고, 지역별로는 서울 5팀, 경기도 8팀, 강원도 1팀, 대전 1팀, 경북경남 7팀, 전북 2팀으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참가자들로 구성되었다.

무안군, 여름철 영농교육 큰 호응 속 성료



무안군은 최근 농업인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영농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하었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 영농교육은, 광주 군사공학 이전 반대 바로알기, PLS제도(농약허용기준강화) 등 홍보와 땅 살리기를 통한 고품질 쌀 재배기술, 양파·참깨·고추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교육 전 과정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우리 지역 농업 전문가인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

원과장 배병열, 농촌지도사 장진오·이지행·이상일 지도자들이 직접 강의하는 등 지역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업인들에게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을 제시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드론공급·양파기계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보급, 1읍면 1특색 소득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화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민선7기 1주년 언론인과 간담회 가져

"일등영암·행복영암·선진영암 만들어 가는데 노력"



전동평 영암군수는 민선7기 1년을 보내면서 영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복행보를 펼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연장 지정되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금융 지원까지 이어져 어려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게 했다.

군민과 함께 만든 공약사업은 전국 지자체중 최고등급(SA) 평가를 받았으며, 조선업 경기 불황에도 채무제로 이어 군 살림이 5천억을 돌파하면서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계층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2년 연속 전국 행복도시 대상을 수상해 명품도시 영암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군에서는 민선7기 1주년을 보내면서 군정 전반에 걸쳐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첫째, 군민이 희망이다! 민선7기가 더욱 새롭고 힘차게 출발하였다. 작년

7월, 군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한 전동평 군수는 태풍 뿌리베를 대비하기 위해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재내응 현장점검을 하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빈틈없는 군정업무 추진에 첫 발을 내딛었다.

두 번째, 새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중단없는 추진으로 알찬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지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노력한 결과, 고용위기(1년)와 산업위기(2년) 특별지역이 연장 지정되어 고용안정·일자리 지원과 금융·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네 번째, 전남 유일,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문화재생·창업·연구센터 구축 등 앞으로 4개분야 22개사업 2,909억 원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

다섯 번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역

대 최다 100만명이 찾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여섯 번째, 전국 행복도시 2년연속 선정,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을 완성하고 있다.

일곱 번째, 건전재정으로 채무제로 이어, 군 살림이 5천억을 돌파하면서 6천억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덟 번째, 민선7기 전국 지자체장 공약 실천계획평가 최고등급(SA)에 선정되었다.

아홉 번째, 전국 지자체 각종 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을 군민과 함께 이뤄냈다.

끝으로, 2018 영암행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뤘으며 남도문화관광의 중심지 위상을 드높였다.

전동평 군수는 군민과 항상 함께 하면서,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1차·2차·3차산업이 고루 발전하는 풍요로운 고장 일등영암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민선7기 공약대상과 공약평가 최고등급(SA) 선정을 기반으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을 100% 이행하고 민선7기부터 시작된 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 군수는 오직 영암군 발전과 군민만을 생각하며 1천여 공직자와 함께 군정 3대행정철학인 현장화 이행,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실천하며, 군정 전반을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해 위대한 6만 영암군민과 함께 일등영암·행복영암·선진영암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병해충 적기방제 총력

진도군이 최근 발생밀도가 높은 맥노린재, 벼멸구 등 병해충 적기 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맥노린재 발생 의심지역과 벼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예방한 결과 전년 대비 노린재 성충 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읍·면 담당 마을을 편성해 관내 242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엠프 방송을 실시했다.

맥노린재는 성충으로 월동한 후 6월 중순부터 분포로 이동해 8월 상순까지 발생한다.

특히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초기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백수현상, 벼 수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피해가 심한 필지의 경우 70%까지 수량이 감소 될 수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 관계자는 "맥노린재, 벼멸구, 나



방류 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돌발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전남 스포츠마케팅 메카 '자리매김'

팔팔 해남이 스포츠마케팅 메카임을 전국에 알렸다.

해남군은 2019 전지훈련 유치 전남도 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돼 시상금으로 경기장 보수 시설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하계 및 2018-2019 동계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16개 종목 5366명의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며 활발한 스포츠마케팅 성과를 거뒀다.

연인원으로는 4만 8675명으로 전

남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종목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은 우슬경기장과 체육관 외에도 3면의 축구전용구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우슬체육공원을 비롯해 종목별 체육관과 수영장, 트레이닝센터, 육상실내경기장까지 꾸준 히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